

다니엘서 - 번호 55

베일이 벗겨지는 예언의 태피스트리: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준 계시

Jeff Pippenger

2024-01-19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예언에 따른 칠십 년의 포로 생활과 모세의 맹세와 저주를 깨달은 뒤, 가브리엘이 그에게 왔다.

그의 통치 첫해에 나 다니엘은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주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칠십 년에 이르리라는 그 연수의 수를 책들을 통해 깨달았다. . . . 정녕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어기고, 곧 떠나 주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저주와 맹세가 우리 위에 쏟아졌나니, 우리가 그에게 죄를 지었음이니이다. 그가 우리와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들을 거슬러 말씀하신 그 말씀을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심으로 확증하셨나이다. 하늘 아래 어디에도 예루살렘에 행하신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난 적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여 우리의 불의에서 돌이켜 주의 진리를 깨닫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 재앙을 주목하시고 우리에게 가져오셨나이다. 주 우리 하나님은 행하시는 모든 일에 의로우시거늘, 우리는 그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다니엘 9:2, 11-14.

다니엘이 '맹세'로 번역된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것은 레위기 26장에서 모세가 '일곱 번'으로 번역된 바로 그 단어와 같다. 화잇 자매는 9장에서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70년 기간과 2300년 기간의 관계를 이해하려 했다고 알려준다. 가브리엘은 8장에서 2300일의 환상을 다니엘이 이해하도록 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9장에 돌아와 자신의 일을 마무리하면서 7장과 8장, 그리고 9장의 주제가 되어 온 두 개의 환상을 머릿속에서 구분하라고 다니엘에게 알린다. 그 두 환상은 1798년에 봉인이 풀리며 드러난 '지식의 증가'의 주제이다.

예레미야의 칠십 년과 모세의 "저주"는 모두, 모세의 "맹세"로 표현된 "일곱 때"의 상징이다. 그러나 가브리엘은 이천삼백 년의 기간을 세분화하여 제시할 것이다. 그것은 짓밟힘의 환상("chazon")과 나타남의 환상("mareh")의 관계가 바르게 구분될 때에만 올바르게 나눌 수 있다. 가브리엘은 먼저 유대인들에게 사백구십 년의 유예 기간이 주어졌음을 밝히는 것으로 시작했다. 그 기간은 칠십 년의 포로 생활을 초래한 사백구십 년간의 반역 기간과 같았다.

24절의 'determined'라는 단어는 기원전 457년에 세 번째 칙령이 반포된 때부터 서기 34년에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은 때까지의 기간을 가리키지만, 26절과 27절의 'determined'는 이교와 교황주의의 황폐하게 하는 권세들을 지목하고 있다.

예수두 이레 후에 메시야가 끊어질 것이나, 자기 때문이 아니며; 장차 올 통치자의 백성이 그 성읍과 성소를 파괴할 것이요, 그 끝은 홍수와 함께 임할 것이며, 전쟁의 끝까지 황폐가 작성되었느니라.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 언약을

확증할 것이며, 그 이레의 중간에 제사와 예물을 그치게 하고, 가증함이 넘쳐 퍼짐으로 인해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종결에 이를 때까지 그렇게 될 것이며, 작정된 것이 황폐한 자 위에 쏟아지리라. 다니엘서 9:26, 27.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메시아'가 '끊어진' '후에' '장차 올 한 왕의 백성'이 '성읍과 성소를 파괴할 것'이라고 알린다. 이교 로마는 서기 66년부터 70년까지 정확히 3년 반 동안 지속된 포위전에서 '성읍과 성소'를 파괴했다. 가브리엘은 '전쟁의 끝'이 '홍수로' 올 것이며, 그 전쟁이 '황폐'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힌다. 예루살렘과 성소를 대항하여 수행된 전쟁은 이교주의와 교황권에 의해 이루어진 유린이었다. 처음에 예루살렘을 파괴할 이교 권세는 바벨론이었으나,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힌 후 그것을 파괴할 이교 권세는 이교 로마였다. 그러나 성소와 군대를 대적한 전쟁은 두 '황폐케 하는' 권세에 의해 이루어졌고, 성경에서 그 두 '황폐케 하는' 권세 중 둘째는 교황권이다.

교황권은 "넘치는 채찍"으로 표현된 권세이며, 다니엘서 11장 40절에서 "넘쳐 흘러 지나가는" 권세이다. 바벨론으로 시작되어 신명기에서 모세가 묘사한 대로 난해한 말을 하는 철의 민족으로 이어진 예루살렘의 짓밟힘은 그 뒤를 교황권이 이었다. 짓밟힘이 끝날 때까지 "황폐"가 "작정되었다." 27절에서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들과 한 주간 동안 언약을 확증하신다. 그 주간의 중간에,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 사역을 시작하심에 따라 지상의 희생 제도는 중단되었다. 그들에게 따로 정해진 유예 기간 동안 유대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성소와 성읍은 다시 황폐하게 될 것이었다.

그 구절은 이렇게 말한다. "가증한 것들의 만연함으로 그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완결에 이를 때까지라. 또 정한 것이 황폐한 자 위에 쏟아지리라." 유대인들이 마침내 그들의 유예 기간의 잔을 가득 채웠을 때, 그 성과 성소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하게 될 것이었다. 1798년에 그 짓밟힘의 "완결"이 이르렀을 때, 교황권이 치명적인 상처를 받게 될 것이 "정해져" 있었다. 그 후 성과 성소는 회복되고 재건될 것이었는데, 이는 유대인들이 세 가지 칙령 아래 실제 바벨론에서 나왔을 때 예표된 바와 같았다.

그 전쟁이 종결될 때까지 예루살렘은 교황권에 의해 짓밟히게 되어 있었다. 이천삼백 년이라는 기간 안에 서로 구분되는 여러 예언적 기간들은, 칠십 년 동안의 짓밟힘에 관한 환상이 성소와 군대의 회복에 관한 환상과 어떤 관련을 가지는지를 이해할 때에만 올바르게 이해될 수 있다. 모세의 저주의 흠여짐의 환상을 거절하는 것은 모으심의 환상을 거절하는 것이다. 칠십 년의 환상은 흠여짐의 환상이다. 이천삼백 년의 환상은 모으심의 환상이다. 칠십 년의 환상은 흠여짐에 대한 'chazon' 환상이며, 이천삼백 년의 환상은 모으심에 대한 'mareh' 환상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지 말라. 마가복음 10:9.

두 환상은 예언적으로 하나로 결합되었고, 하나를 거부하는 것은 둘 다를 거부하는 것이다. 이 사실은, 재림주의가 자신들은 2,300년 예언을 고수한다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1863년에 '일곱 때'를 거부했을 때만큼이나 확실하게 재림주의의 중심 기둥을 거부했음을 드러낸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공언하지 않았는가? 고대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고 공언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지 않는 공언은 무의미하다.

밀러주의자들은 결국 1844년 10월 22일을 2,300일 기간의 끝으로 지목했지만, 그들의 이해는 제한적이었다. 큰 실망 이후에야 비로소 하늘 성소와 그날 지성소에서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에 관한 빛이 임했다. 그 날짜 이후에야 그들은 셋째 천사의 기별과 하나님의 율법을 깨닫게 되었다.

주님은 2,300년과 관련된 예언의 빛을 증가시키고자 하였고, 1856년에 더 큰 빛을 위한 문을 여셨으나, 그 다음 7년 동안 재림운동은 그 문을 닫았다. 2001년 9월 11일 이후가 되어서야 주님은 예언을 연구하는 이들을 히람 에드슨의 글로 다시 인도하셨고, '일곱 때'의 빛이 다시금 증가하기 시작했다.

2,300년 예언과 2,520년 예언 사이의 관계를 보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재림주의는 1844년 10월 22일을 제한적이고 불완전한 방식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S. S. 스노우가 십자가형의 날짜를 확정하자, 1844년 10월 22일이라는 날짜가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알며 깨달으라.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통치자에게 이르기까지 일곱 이레와 육십이 이레가 있을 것이며, 거리와 성벽이 어려운 때에도 다시 건축될 것이다. 그리고 육십이 이레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지되 자기 자신을 위함이 아니며, 장차 올 통치자의 백성이 그 성읍과 성소를 멸할 것이요, 그 끝은 홍수처럼 임할 것이며 전쟁의 끝까지 황폐가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한 이레 동안 많은 사람과 언약을 굳게 맺을 것이요,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그치게 하고, 가증한 것들의 만연함으로 그것을 황폐하게 하되, 마침내 끝이 이를 때까지 그렇게 하리니, 이미 정해진 것이 그 황폐한 자 위에 쏟아지리라. 다니엘 9:25-27.

밀러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형의 정확한 날짜를 밝혀냈고, 그 결과 이천삼백 년 기간의 종결도 확인되었다. 또한, '가증함의 만연'으로 표현된 바와 같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유예 기간의 잔을 가득 채움에 따라, 그리스도께서 '언약'을 확증하신 '한 주간의 중간'에 '메시아가 끊어짐'도 확인되었다. 십자가는 '한밤중의 외침' 메시지를 알아보는 데 필수적인 역사적 이정표가 되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토록 강력하게 드러나게 했던 그 성경 구절들 속에 빛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밀러주의자들은 두 환상의 관계를 이해하고자 한 다니엘의 열망으로 표현되는, 그 구절들에 대한 이해에 이르지 못했다. 그리스도께서 언약을 확증하신 그 한 이레는 두 기간으로 나뉘었는데, 화이트 자매는 훗날 이를 그리스도의 3년 반에 걸친 친히 행하신 사역과, 이어서 제자들에게 의해 대표된 그의 사역을 나타내는 것으로 규정했다. 그들은 역사적 이정표인 십자가가 1844년 10월 22일이라는 날짜를 확정하는 닷이 되었다는 것은 보았지만, 그것이 서로 동일한 두 개의 3년 반 기간의 중심을 이룬다는 것, 곧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의 언약의 다툼'이라 부르신 '일곱 때'를 나타낸다는 것은 보지 못했다.

그때에 나도 너희를 대적하여 행하며,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칠 배나 더 징벌하리라. 또 내가 너희에게 칼을 임하게 하여 내 언약의 원한을 갚게 할 것이며, 너희가 너희 성읍들 안에 모일 때에는 내가 너희 가운데 전염병을 보내리니, 너희가 원수의 손에 넘겨지리라. 레위기 26:24, 25.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과 언약을 굳게 하실 때, 그것은 그가 불순종하는 유대인들과 그 언약을 두고 다투셨던 바로 그 언약이었다. '그의 언약을 둘러싼 다툼'은 기원전 723년에 아시리아가 이스라엘 북왕국을 포로로 끌고 갔을 때 시작되었고, 그 후 예언적 1,260일 동안 이교가 육적 이스라엘을 짓밟았다. 그 짓밟힘은 이어 교황권이 영적 이스라엘을 짓밟는 또 다른 예언적 1,260일로 이어졌다.

그리스도께서 언약을 확증하신 예언의 한 이레는 이천삼백 년의 이상의 성취 속에서, 또한 이천오백이십 년의 이상을 표상하기도 했다. 밀러파는 이천삼백 년 예언을 올바르게 한밤중의 외침 기별로 선포할 만큼은 인식했지만, 9장의 가브리엘의 해석이 전하려던 빛의 일부를 거절하기로 선택했다.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matter'와 'vision'으로 표현된 두 환상을 올바르게 구분(정신적으로 분리)하라고 가르쳤고, 그 권고에 부합하여 화이트 자매는 이것이 다니엘이 칠십 이레('seven times'의 상징)와 이천삼백 년의 관계를 이해하고자 할 때 그가 짊어진 바로 그 부담이었다고 우리에게 알려 준다.

재림주의의 '일곱 때' 거부는 그들로 하여금, 2,300년에서 잘려 나간 처음 490년의 기간이 모세가 '그의 언약의 다툼'이라고 지칭한 언약에 대한 반역을 나타낸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게 했다.

그들은 또한 한 이레의 중간에 있었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 단지 날짜를 특정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가로막혀 있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언약의 피에 근거하여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상대로 벌이신 논쟁의 바로 중심을 지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십자가에서 많은 사람을 위해 흘려져 그의 언약을 확증하던 그 피가 레위기 25장과 26장에 제시된 언약 또한 확증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눈이 멀어 있었다.

고대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리라'는 그들의 선포를 언약의 정의로 삼아 스스로 언약을 맺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제시하신 언약은 그의 법이 마음에 기록되는 것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언약의 조건에 대한 그들의 바리새적 정의가 그들이 참된 언약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가로막았다.

현대 이스라엘은 '한 주의 중간'에 있는 십자가의 피를, 메시아를 거부하고 '우리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고 선포했던 고대 이스라엘에게 임했던 것과 같은 눈먼 상태를 현대 이스라엘에게도 초래하는 방식으로 정의해 왔다.

현대 이스라엘은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제시한 역사가 언약의 확증만이 아니라 그 언약을 거부한 자들에게 닥치는 흠어짐도 포함한다는 사실에 눈이 멀어 있다. 이는 그 구절들이 이방 로마(장차 올 그 통치자)가 도성과 성소를 멸할 것이며, 성소와 군대를 짓밟은 그 전쟁의 끝까지 '황폐들'이 작성되었음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과 맺으신 언약을 확증하시기 위해 피를 흘리신 역사 속에서, 이교 로마와 교황 로마라는 두 황폐케 하는 세력이 분명히 드러난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는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소에 가지고 들어가시는 것이며, 2,300년의 "mareh" 환상이 나타내는 그분의 사역을 상징한다. 그 역사는 성소와 군대를 짓밟을 두 황폐케 하는 세력으로 나타난 2,520년의 "chazon" 환상의 역사와 엮여 있다.

밀러의 꿈에서 보석으로 표현된 진리들은 태양처럼 밝게 빛났지만, 그것들은 완전하지 않았다. 마지막 때에, 한밤중의 외침이 문자 그대로 반복될 때, 바로 그 보석들을 '먼지술을 든 사람'이 새롭고 더 큰 보석함에 던져 넣을 것이며, 그러면 그것들은 원래보다 열 배 더 밝게 빛날 것이다. 그것들이 최종 한밤중의 외침 메시지의 시험이 된다. 그 보석들은 하박국이 예언한 두 증인에 의해 표로서 구체적으로 식별되었다. 1843년과 1850년 개척자 도표의 두 표를 '줄 위에 줄'로 서로 포개 놓으면, 밀러의 보석들이 구체적으로 식별되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 보석들은 최종 한밤중의 외침 메시지를 대표한다.

두 도표에 담긴 진리의 대부분은 1844년 이전에 성취된 예언들을 보여 주며, 예컨대 다니엘 7장과 8장의 짐승들의 정체를 규명하는 내용과 같다. 다니엘 2장의 신상도 제시되어 있다. 그 환상이 로마를 가리키는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가리키는지에 대한 논쟁도 있다. 첫 번째 실망과 하박국과 열 처녀의 '지체의 때'도 있다. 셋째 천사의 도래와 하늘 성소도 있다. 'the daily'가 이교의 상징으로 제시되어 있다. 물론 이슬람의 세화도 있다. 이 도표들을 함께 모아 보면, 유다 지파의 사자가 예언적 진리의 봉인을 뿜 때 일어나는 '지식의 증가'를 보여 주는 한 그림이 된다.

우리가 1798년 끝의 때에 봉인이 풀려 더해지고, 윌리엄 밀러의 꿈에 나오는 새롭고 더 큰 상자 속 보석들을 이루게 된 예언적 지식을 상징하는 올라이 강의 이상에 대한 고찰을 마무리해 가면서, 역사 속에서 미완성이었던 밀러파의 진리들을 다시 살펴볼 것이다. 그중 일부는 밀러파가 살던 역사적 시기 때문에 미완성으로 남았고, 또 다른 일부는 셋째 천사의 전진하는 빛을 따라가기를 거부한 이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미완성으로 남았다.

이 내용은 다음 기사에서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맡겨 보내신 자들은 다만 사람들일 뿐이다. 그러나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의 성격은 어떠한가? 하나님께서 무엇이 바람직한지에 관해 너희와 상의하지 않으셨다는 이유로, 그 경고들을 외면하거나 가볍게 여길 감히 그러겠는가? 하나님은 말할 자들, 크게 외치며 목소리를 아끼지 않을 자들을 부르신다. 하나님께서는 이때를 위하여 당신의 일을 하도록 그분의 사자들을 일으키셨다. 어떤 이들은 진리의 메시지를 바라는 모든 품위와 세련을 갖추어 말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리스도의 의에 관한 메시지에서 돌아서서 그 사람들과 그들의 불완전함을 비판한다. 그들은 지나치게 열성적이고, 지나치게 진지하며, 지나치게 단정적으로 말한다고 한다. 그리하여 많은 지치고 억눌린 영혼들에게 치유와 생명과 위로를 가져다줄 그 메시지는 어느 정도 배제된다. 왜냐하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닫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맞서 자기 뜻을 세우는 만큼, 그들은 빛과 생기를 갈망하고 기도해 온 이들에게 비치는 한 줄기 빛마저 빼앗아 가려 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종들을 대적하여 내뿜은 모든 거칠고 교만하며 비웃는 말들을, 자신을 향한 것으로 기록해 두셨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이해되지 않을 것이다. 그 빛의 점점 더해지는 영광 가운데서 행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은, 그 영광으로 온 땅을 비출 그 빛을 거짓된 빛이라 부를 것이다. 그들의 불신 때문에 진리를 거절한 자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을 수도 있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남게 될 것이다. 진리의 빛을 대적하는 여러분에게 간청하니, 하나님의 백성의 길에서 비켜 서라. 하늘에서 보내신 빛이 그들 위에

분명하고 한결같은 빛줄기로 비치게 하라. 이 빛이 임한 너희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 듣기를 거부하는 자들은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이는 진리가 그들의 손이 닿는 곳까지 와 있었지만, 그들이 자신들의 기회와 특권을 멸시했기 때문이다. 신적 권위를 지닌 기별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보내졌다. 선하심과 진리로 충만하신 그리스도의 영광과 위엄과 의가 제시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성의 충만이, 편견으로 마음을 닫지 않은 모든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하여, 아름다움과 사랑스러움으로 우리 가운데 드러났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셨음을 안다. 우리는 영혼들이 죄에서 의로 돌아서는 것을 보았다. 우리는 통회하는 자들의 마음에서 믿음이 소생하는 것을 보았다. 우리가 깨끗함을 받은 나병환자들처럼 각기 자기 길로 가버리고, 그중 오직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돌아왔던 것처럼 그렇게 하겠는가? 오히려 그의 선하심을 전하고, 마음과 펜과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자. 리뷰 앤드 헤럴드, 1890년 5월 27일.